

목포시, 섬 정주여건 개선...울도 수돗물 '칼칼'

지방상수도 통수식...주민 200여명 식수난 해소 내년까지 외달도 완료되면 도서지역 공급 완료

수돗물이 도서지역인 목포시 울도에도 공급된다. 시는 13일 울도1구 선착장에서 김종식 목포시장, 박장수 시의장, 시의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도 지방상수도 공급 통수식'을 개최했다. 울도에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주민 200여명(104세대)의 식수난이 해소됐다. 김종식 시장은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해온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돼 기쁘다"면서 "남은 사업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 도서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식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도 수돗물 공급은 시의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에 따른 것이다. 시는 총사업비 182억원(국비 127억원, 도비 12억원, 시비 43억원)을 투입해 북항~장좌도~울도~달리도~외달도 구간(14.8km)에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 장좌도에 이어 올해 울도까지 통수되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11월 달리도에도 수돗물 통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외달도까지 관로가 매설되면 도서지역 주민의 숙원인 식수난이 완전히 해소되고, 목포시 지방상수도 보급률도 100%를 달성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 해저관로 매설공사가 완료돼 외달도까지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가 완성되면 물 걱정이 사라져 도서지역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며 "물 공급



을 위한 오랜 숙원 사업임을 감안해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광군, 그린뉴딜 선도 에너지자립 기반구축 추진 동력 확보 했다

영광군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택, 상업·공공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8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설계·시공·감리 전문업체 4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전 수요조사 등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제안평가 및 현장평가에서 김준성 군수의 그린뉴딜 선도 정책 시행과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어 2년 연속해서 선정됐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년 1월부터 총 사업비 45억 원(국비 23, 도비 2, 군비 14, 자부담 6)을 투자하여 배수읍, 홍농읍, 범성면, 영광읍, 군서면 5개 읍면에 총 457개소(태양광 445, 태양열 12)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암군,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정비

영암군은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는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도로명주소 정착과 길찾기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대상은 영암군에 설치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28,355개이며, 스마트 KAIS 단말기를 이용하여 안내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위치의 적정성 및 시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영암군은 올해 일제조사를 통해 정상 28,287개, 훼손 11개, 망실 18개, 표기내용 1개, 위치·방향조정 38개 등을 조사하였으며, 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명판 49개의 유지보수를 완료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20일까지 운영...적발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함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계획에 맞춰 오는 20일까지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함평군은 13일 "함평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가 장기화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평군민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

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

되는 자료를 분석하여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금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단속으로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 함평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순순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무안군 환경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무안군 환경면(면장 조수정)은 지난 8일 정기운영회의를 거쳐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새롭게 출범

했다고 밝혔다. 제4기 환경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

부한 위원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봉사 경험이 풍부한 최민규 위원이 만장일치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특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최민규 신임 민간위원장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작은 섬 신안 병풍도의 기적 '섬 맨드라미 랜선축제' 성료

10일간 대장정 마무리...온라인 방식 새로운 시도 성공

신안군은 "2021 섬 맨드라미 랜선축제"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작은 섬 병풍도의 기적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된 섬 맨드라미축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10여종의 다양한 콘텐츠구성으로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2회에 걸쳐 진행된 라이브 커머스는 신안특산물인 김과 왕새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됐으며, 축제기간 내내 군 온라인 쇼핑몰인 "신안 1004몰"에서 할인 판매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는 빨간색 드레스코드 인증 이벤트와 병풍도 사진작가의 사진찍기 이벤트 등 축제장을 찾는 이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 맨드라미축제는 인구 100여명 사는 작은 섬에 열흘간 인구의 100배 많은 1만여명 가까이 찾아온 병풍도의 기적을 보여준 축제이다."면서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현장으로 오셔서 아름다운 맨드라미 꽃을 직접 보시고 축제의 열기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